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5163
----------	-------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우원식 · 이학영 · 김원이
 이소영 · 진성준 · 오영환
 오기형 · 김한규 · 강준현
 홍정민 · 강민정 · 김민기
 이병훈 · 류호정 · 맹성규
 양정숙 · 심상정 · 李秀眞
 윤미향 · 박홍근 · 김교홍
 유기홍 · 조오섭 · 이원욱
 김종민 · 김성주 · 이장섭
 우상호 · 서영석 · 김병기
 이재정 · 정태호 · 황 희
 유정주 · 허 영 · 김영배
 김용민 · 전재수 · 강병원
 최혜영 · 정춘숙 · 정청래
 송재호 · 홍성국 · 이탄희
 김정호 · 박상혁 · 강득구
 신영대 · 이용우 · 김철민
 민홍철 · 김의겸 · 이개호
 정필모 · 김경만 · 기동민
 박성준 · 서동용 · 백혜련
 신현영 · 최기상 · 아주진(비)
 권칠승 · 신정훈 · 이형석
 윤재갑 · 김병주 · 박재호

송갑석 · 김윤덕 · 임오경
윤건영 · 어기구 · 정성호
용혜인 · 인재근 · 김영진
강훈식 · 고민정 · 박광온
송옥주 · 홍영표 · 소병훈
윤영덕 · 전용기 · 이원택
정일영 · 소병철 · 이용선
주철현 · 이은주 · 조용천
김주영 · 위성곤 · 김민석
이상현 · 이인영 · 이상민
김승원 · 김경협 · 장경태
남인순 · 장철민 · 윤영찬
이해식 · 유동수 · 한준호
박주민 · 윤후덕 · 민병덕
천준호 · 허숙정 · 조승래
전혜숙 · 도종환 · 임호선
안호영 · 김수홍 · 윤호중
김상희 · 이용빈 · 최종윤
최인호 · 홍기원 · 강선우
신동근 · 김한정 · 김홍걸
이정문 · 장혜영 · 전해철
황운하 · 임종성 · 양이원영
허종식 · 이동주 · 진선미
홍익표 · 김태년 · 박 정
민형배 · 배진교 · 김영주
권인숙 · 송기현 · 서삼석
조정식 · 김성환 · 안규백

박찬대 · 양기대 · 고영인
김두관 · 변재일 · 한병도
노웅래 · 서영교 · 한정애
설 훈 · 문진석 · 박영순
박병석 · 김민철 · 김영호
이재명 · 윤준병 · 박용진
김승남 · 문정복 · 안민석
고용진 · 김희재 · 박범계
김병욱 · 강은미 · 양경숙
김남국 · 강성희 · 이성만
박완주 의원(18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 지청천 · 이범석 · 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철거 시도 및 관련 역사왜곡 발언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군의 정통성과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 지청천 · 이범석 · 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철거 및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흉상을 현 상태로 존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충무관 내의 영웅실을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립전쟁 영웅 등 독립유공자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20년은 이른바 독립전쟁의 해로 10월에는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의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하고 승리한 청산리 대첩이, 6월에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 1개 대대를 대패시킨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인 봉오동 전투가 있었음.

이처럼 우리에게는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를 기리고자 그 주역들인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교내 충무관 앞에는 다섯 분의 흉상이 세워져 있음.

홍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의미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리고, 또한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육사의 정체성이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도 함.

그런데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의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을 철거하려 하고 있음.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은 육사 밖으로 철거하고 나머지 유공자의 홍상 또한 육사 내 박물관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관련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촉발됨.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철거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이 확인되고 있음. 그 이유는 홍상철거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홍상철거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반헌법적 발상인바, 이와 같은 독립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이에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을 현 상태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논의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이 결의함.